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브라질 상파울로 성호세공동체에서

오늘 2025 년 6 월 16 일, 6 시 15 분 (현지시간)

**안토니아 마틸데, 마르가레테 로페스수녀님이
(ANTÔNIA MATHILDE, Sr MARGARETE LOPES)**

89 세(64 년간의 수도생활)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오늘 전례의 시편은 마르가레테 수녀의 기쁘고 충실한 삶과 선한 목자께서 수녀님 안에서 일하시고 수녀님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목 사도직의 경이로움을 찬미합니다.

안토니아 마틸데는 1936 년 2 월 23 일 산 카를로스(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태어났으며 같은 해 3 월 22 일 산 카를로스(브라질 상파울로) 대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토니아는 테레지나 로페스 수녀(1995 년 사망), 레티시아 로페스 수녀, 아나 로페스 수녀 등 네명의 빠스도렐레를 수녀회에 선물하였고, 또한 교회의 종신 부제(루벤스)를 선물한 매우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57 년 12 월 11 일에 자바과라(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입회했고, 1960 년 2 월 1 일에는 브라질 카시아스도술-성 레오폴도에서 수련에 들어갔습니다. 1961 년 2 월 2 일, 카시아스도술-성 레오폴도(브라질)에서 마르가레테 수녀라는 이름으로 첫 서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66 년 2 월 2 일에는 다시 브라질 카시아스도술-네오폴도에서 종신 서원을 했습니다.

마르가레테 수녀는 매우 좋은 수녀였고 의사소통이 잘되었으며 항상 매우 즐거웠고 공동체에서 함께 살기 쉬웠다고 묘사됩니다. 기도의 여인으로, 사목 사도직과 "알베리오네 신부" 관구의 행정 업무 소임에 매우 헌신적이었으며,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경제를 담당했다.

수녀님은 또한 관구 평의원이었으며 모든 봉사를 책임감 있게 살았으고 기쁘고 단순하며 관대하게 봉헌된 삶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여러 지역 교회에서 큰 관대함과 헌신으로 사목사도직을 살았습니다 : 1961 Centenario do Sul / PR; 1970 Regente Feijó / SP; 1971 산 파울로 – 자르딤; 1973 브라질리아/DF; 1983 성바오로 관구본부; 1997 브라질리아/DF; 1998 산 파울로 – 자르딤; 1999 아시스/SP; 2011 산 바울로– 성 호세집; 2016 S. 파울로 – 자르딤; 2020년에는 산 바울로– 성 호세집에서 건강을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르가레테 수녀님은 평온하게 살았으며 성 호세 수녀원의 병든 수녀님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수녀님은 예기치 않게 세상을 떠났지만 평온했고 항상 수녀님들과 외부 직원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관구 수녀님들이 마가레테 수녀님에게 베풀어 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수녀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가레테 수녀님은 매우 사교적이고 즐겁고 형제애가 강했으며 유머 감각이 강하여 언제나 기쁜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편안한 미소로 그녀는 농담을 하는 것을 좋아하여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십자말풀이와 낱말 찾기를 좋아했는데, 이 습관은 오늘 아침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평화롭게 떠날 때까지 그녀의 마음을 깨어 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기쁨, 단순함, 헌신으로 자신의 성소를 강렬하게 살았습니다. 기도의 여인이었던 그녀는 "유머가 넘치는 영성"이 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마르가레테 수녀님,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기면서,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했고, 당신의 기쁨에 찬 증거 와 받은 선물에 대한 충실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큰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인류를 위한 평화의 선물을 전구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총 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2025 년 6 월 16 일 브라질 산 바울로
순교자 성주리코와 주리타